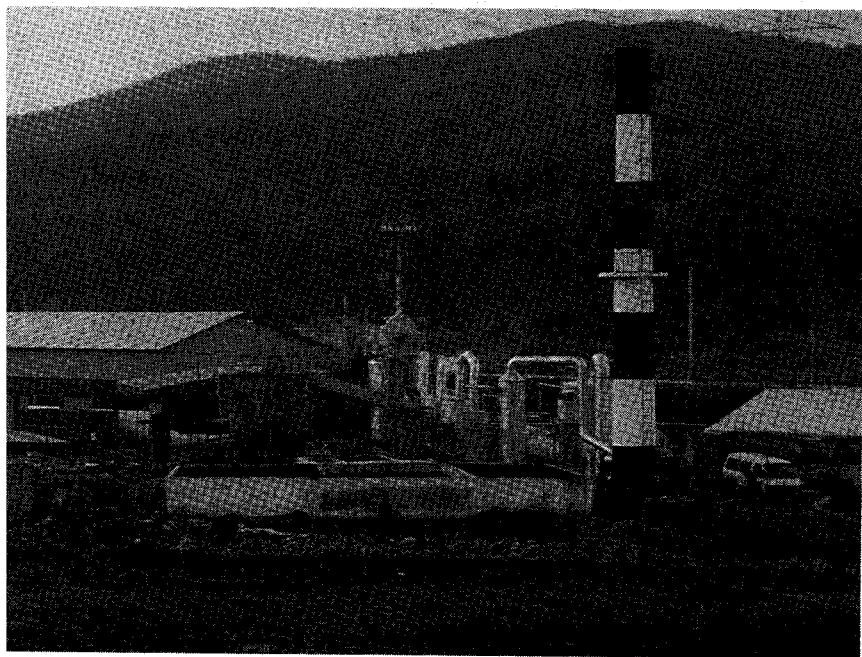


폐기물처리에 완벽을 기하고져

■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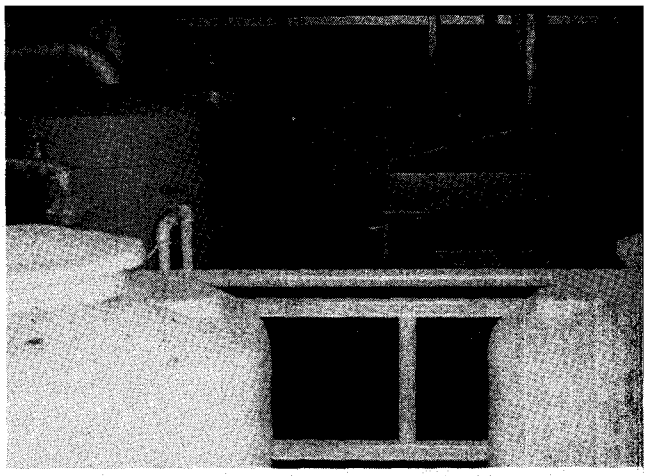
(주)대정환경 용인공장 전경

리업을 선두로 일반 산업폐기물과 특정 산업폐기물 처리업을 포함 종합산업폐기물 처리업을 떠나감에 있어 수년간을 업계의 무지와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못하며 인고의 세월을 지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비로소 점차 증가되는 환경보전 인식과 더불어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지양되고 제도화 되면서부터 '83년 이후에야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되고 지난해에 폐수배출량 5톤 미만업체를 대상으로 폐수 수탁처리업을 개시하는 등 사업규모를 조금씩 확대해 나갈 수 있어 이제는 전국의 종말처리업체 35개 정도 가운데 선두 그룹에 서도 부끄럽지 않은 회사가 되었다.

대정환경의 최태영 대표는 120여 명의 전사원이 동고동락하자며 모든 일에 솔선수범을 보이는 열린마음의 젊은 기업가로서 “쾌적한 환경은 후손에 물려줘야할 우리들의 의무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사는 환경관련의 종합 시스템을 설비관리 가능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종합회사로 커나갈 방침입니다.”고 말하며 오염방지시설업으로부터 자

후손들에게 맑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사명감으로 노력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 (주)대정환경을 찾아 폐기물 처리 실태와 처리방법, 그리고 사업비전등을 알아 보았다. 환경오염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특히 도시산업화와 아울러 오늘날 당혹케하는 문제가 산업 폐기물의 적정처리업을 환경을 다루는 이들은 염려하고 있다. (주)대정환경은 일찍부터 이러한 환경문제의 주안점이 될 폐기물처리와 재이용에 관심을 두어 '79년에 폐유류 재생처



가 측정업까지 할 수 있는 한 폐기물의 완벽한 처리를 하고자 소망하는 사업비전을 밝혀주었다.

따라서 현재 동분야에 낙후된 기술보완을 하기 위해 일본, 미국등으로부터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는 실현이 되리라 본다.

대정환경은 용인과 인천에 두 공장을 두고 용인 공장에서는 약 200여 업소의 특정유해물질, 폐산, 폐알칼리, 폐합성수지, 폐유 및 일반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참고 1> 처리량은 10톤트럭 70여대분의 700톤/일이다. 또한 인천공장에서는 수탁폐수를 처리하고 있는데 현상액, 정작액, 도금폐수, 세척폐수를 포함 약 350여 업소의 약 350톤/일 폐수를 분류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사용하는 2대의 고농도 폐수처리장치 Drum Dryer는 그 고안자가 본 공장의 홍기호 공장장으로 효율적인 고농도 폐수처

(주)대정환경 인천 공장 내부, 약품통 및 Drum Dryer가 보인다.

리에 기여하고 있다. 대정환경은 폐기물, 폐유, 폐수의 운반을 위해 30대의 차량과 3대의 탱크크리를 보유하고 있어 처리물의 신속한 운반을 도모한다.

현재 관·산·민이 폐기물 처리 문제에 가장 부심하고 있는 것은 매립장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동사의 홍석봉전무는 “모두가 당장의 자기 이익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공존을 위한 큰 안목과 환경보전의식을 제고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영업 및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수호 과장은 “저희 업체가 가진 운용상의 애로는 폐기물의 처리신고자가 운반자로 되어 있는 점인데 발생업소자체의 발생

빈도와 발생량에 잦은 변동으로 처리업자의 행정업무 중복 및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고 하며 당국의 좀더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바란다고.

마포구 동교동에 자리한 40여평의 사무실은 끊이지 않는 전화벨소리, 한쪽에서 담소하는 직원들, 청사진을 펼쳐놓고 꼼꼼히 업무에 열중하는 직원들로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순항하는 대정호(大井號)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주)대정환경 161-10 우성빌딩 2층
전화 332-2601

<참고 1> 특정유해물질 처리공정도

